



# 기가 파치와 비밀의 종소리

AI도움받아 박병현 씀

# 작가프로필

마음속에 반짝이는 별빛을 심고, 작은 바람과 풀잎의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오늘도 누군가의 지친 하루에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마법 같은 줄을 써 내려갑니다. 지친 마음을 포근하게 토닥이는 이야기 정원사, 동화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 완성

백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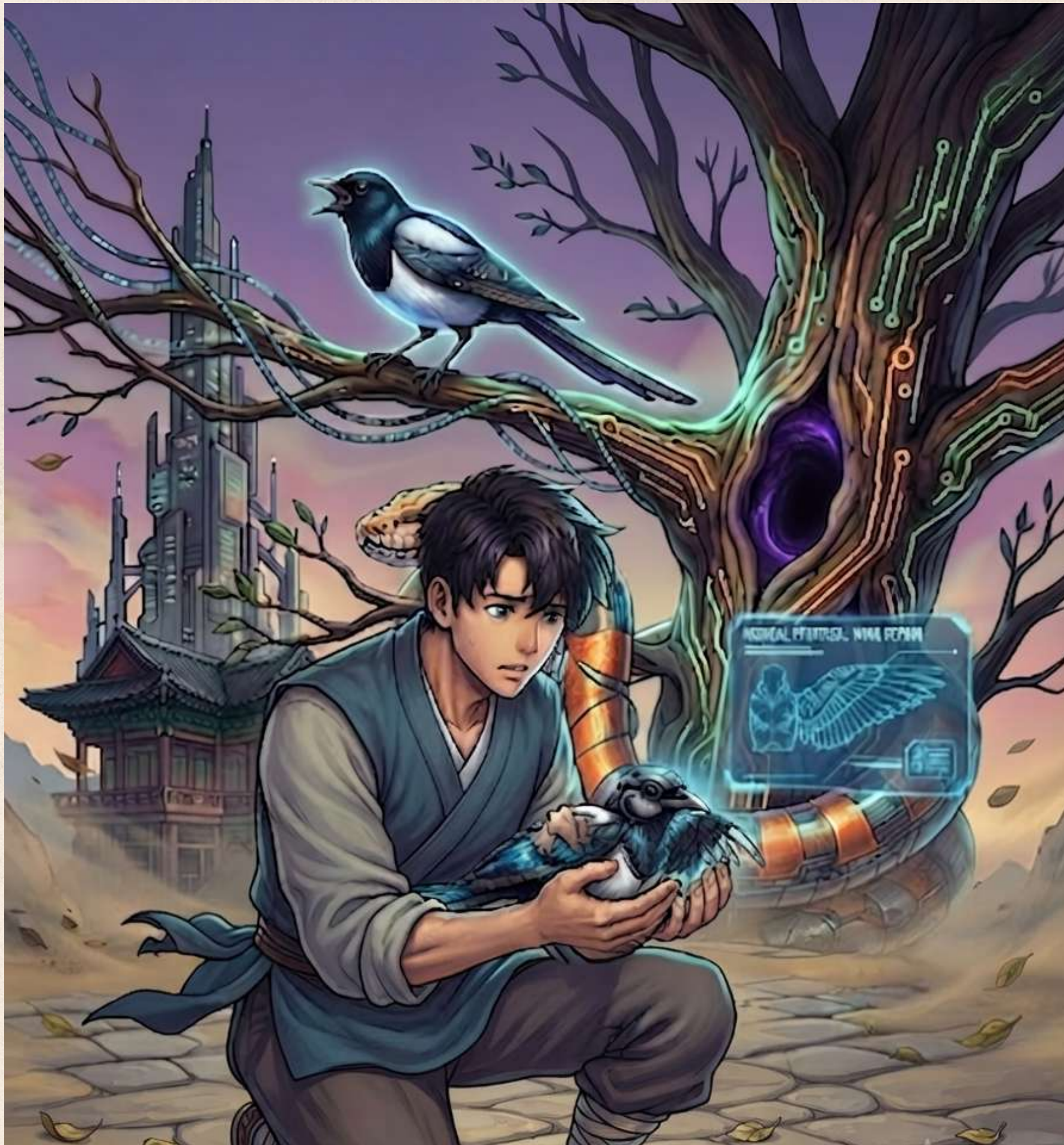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 1장 (만남)

바람이 쌩쌩 부는 마당에서 진우는 날개를 다친 아기 까치를 발견했어요.

까치가 작은 목소리로 삐익, 삐익 울었어요.

"아야야, 너무 아파."

진우는 다친 까치를 조심스럽게 안아 들고 말했어요.

"많이 아팠지? 걱정 마. 내가 따뜻하게 치료해 줄게."



## 2장 (이름과 약속)

까치는 금방 건강해졌어요. 진우는 까치의 목에 반짝이는 스마트 링을 걸어주며 웃었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기가'야. 우리 좋은 친구가 되자."

진우가 기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기가야, 내 곁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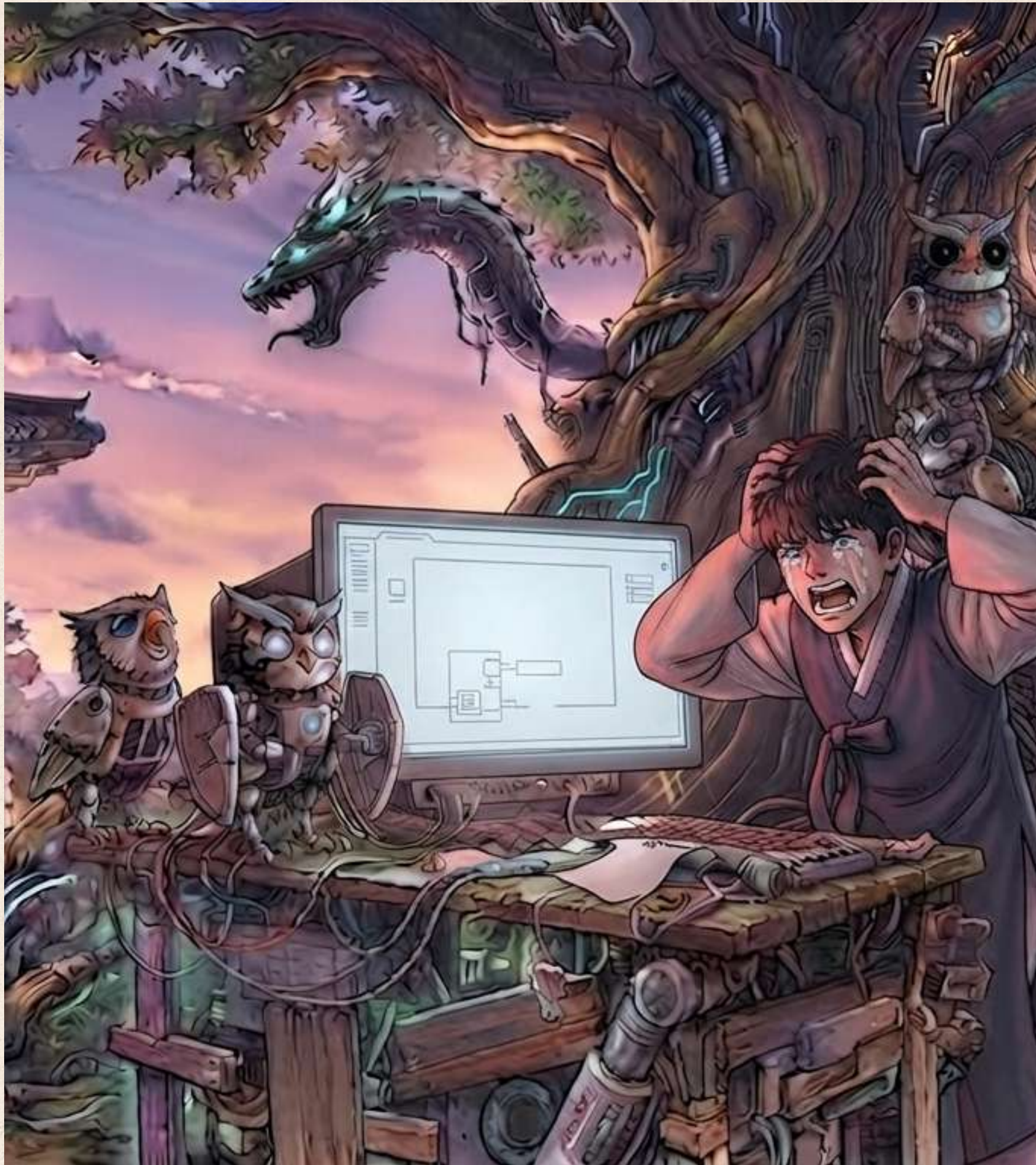


### 3장 (노력과 좌절)

진우는 숲을 지킬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코딩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진우가 모니터를 보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아니, 왜 자꾸 에러가 나는 거야? 내가 참! 로봇이 왜 안 움직이지? 궁금? 하네 정말!"



#### 4장 (마음 다잡기)

진우는 화가 나서 마우스를 쿵 내려놓았어요.

"에이, 다 망가졌잖아! 다 부숴버려!"  
그때 기가가 진우의 어깨를 툭툭 쪼았어요. 진우는 깊은숨을 내쉬며 기가를 보았죠.

"휴, 기가야 미안해. 화내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세자. 일, 이,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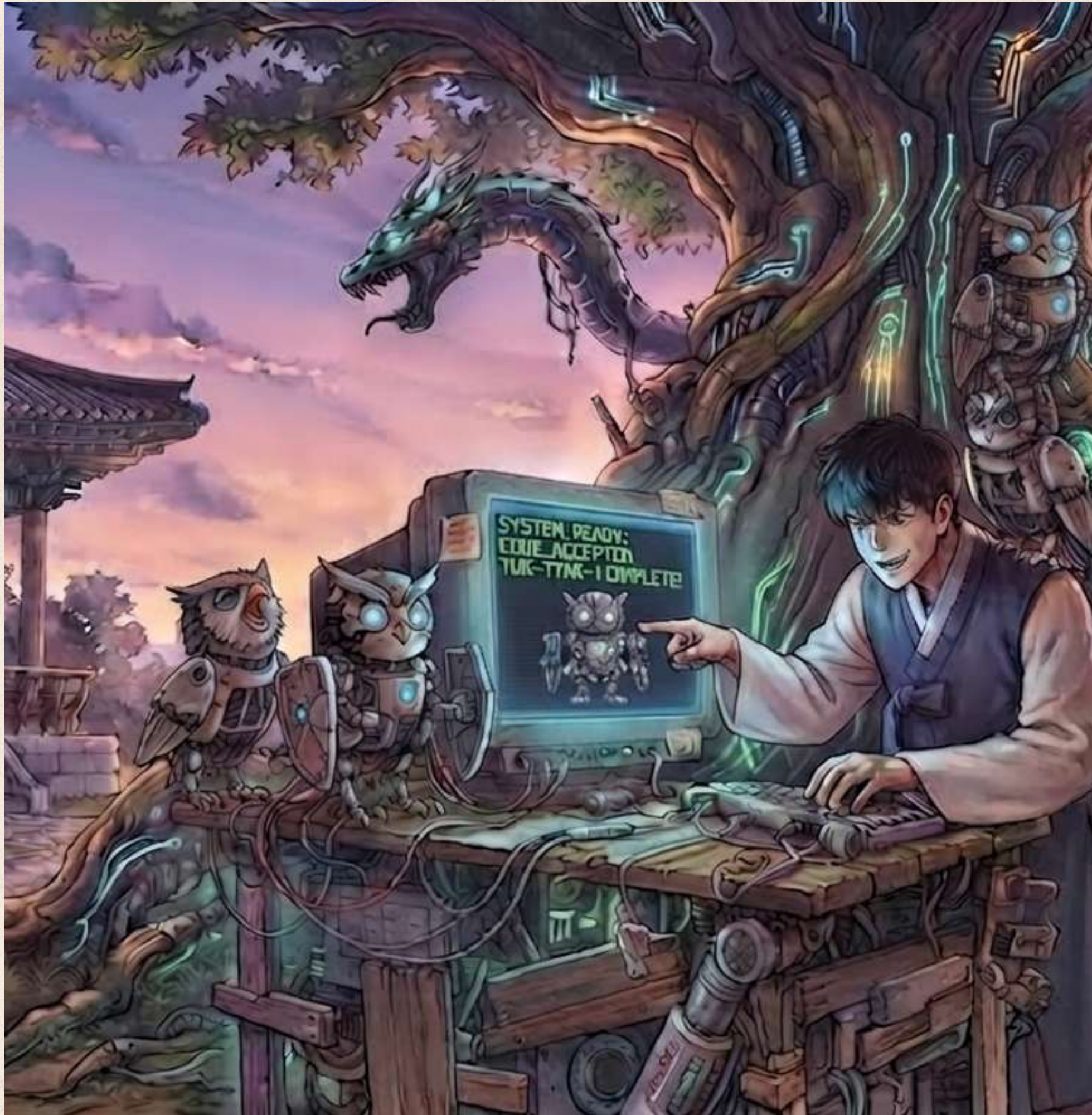


## 5장 (뚝딱이 탄생)

차분하게 코딩을 마친 진우가 소리쳤어요.

"됐다! 드디어 '뚝딱이'가 완성됐어! 기가야, 우리 이제 숲을 지킬 준비가 다 됐어."

기가도 신이 나서 '까악까악'하고 대답했습니다.



6장 (바이러스의 습격)  
평화롭던 밤, 컴퓨터 속에 나쁜 바이러스 '카이'가 나타났어요.  
"으하하! 이 숲의 인공지능을 내가 다 망가뜨려 주마!"  
숲의 데이터들이 파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 7장 (위기)

연구소 시스템이 모두 멈춰버렸어요.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가득 찼죠.  
진우는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 도저히 안 돼, 어떻게 하지? 이  
대로 두면 숲이 위험해져!"



## 8장 (기가의 용기)

그때 기가가 창문 틈으로 날아올랐어요.

"내가 종을 울려야 해! 그래야 진우가  
알 수 있어!"

기가는 땀을 부는 바람을 뚫고 숲속  
높은 비상 종으로 힘차게 날아갔어요.



9장 (구출)

깡-! 깡-!

기가가 종을 향해 머리를 박았어요.  
종소리가 숲에 가득 찼죠.

진우가 그 소리를 듣고 소리쳤어요.

"기의의 신호야! 저곳에 답이 있어!"

진우는 번개처럼 백신을 전송했고, 바이러스 구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 10장 (행복한 결말)

진우는 무사히 돌아온 기가를 품에 꼭 안았어요.

"나를 구해줘서, 우리 숲을 지켜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기도 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딱딱'하고 행복하게 울었습니다.

